大韓韓方內科學會誌:第15卷 第2號
K.I.M.S. Vol.15, No.2, 1994.

精神的인 stress로 因하여 肝에 미치는 影響과 이로 因한 消化器障碍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敎室
홍석의 · 김강산 · 강병기

Ⅰ. 緖 論

肝은 橫膈膜 下部의 右脅肋骨部에 附着되었으며, 그 系는 膈膜을 貫通하여 肺中으로 入하고, 다시 膈膜과 相連되어 있다. 肝은 膽과 表裏가 되며 大腸과는 相通의 關係를 이룬다. 肝은 大葉과 小葉으로 形成되어 春木의 떡잎과 類似한 形象이며, 陽和의 氣를 宣發하며, 魂의 宮이라고도 한다[1]. 肝은 體陰而用陽의 臟이라고 한다. 이는 肝의 構造的 特性은 陰이나, 肝系機關을 通하여 나타나는 發生力과 運動力은 陽의 性質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2]. 나타나는 作用에 있어서는 肝陰과 肝陽 사이에 一定한 平衡狀態를 維持할 때 正常的인 生理作用을 遂行하게 된다.

肝의 機能으로는 血液을 貯藏하고, 循環하는 것을 調節하고, 防禦·解毒機能을 하고, 精神思惟活動과 一定한 關係가 있다. 또한 筋肉의 機能을 主管하고 눈(目)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升發과 疏泄의 機能을 한다[3].

<醫宗金鑑>에서는 肝은 將軍之官이고 謀慮를 出焉한다고 했고, 그 合은 筋이며 그 榮은 爪로 나타나고 魂을 藏하고 目으로 開竅한다고 했다[4].

<黃帝內經·素問 六節藏象論>에서는 肝은 罷極之本이며 魂이 居하며 그 充은 筋에 있으며, 血氣를 生하고 그 맛은 酸이고, 그 色은 蒼이라 했고, 陽中의 少陽으로 春氣에 通한다고 했다[5]. 王叔和의 <脈訣>에서는 肝은 春陽에 應하고 膽과 같은 房을 使用하며, 肝의 무게는 四斤四兩이고 左三葉과 右四葉해서 七葉의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다[6]. 李梴의 <醫學入門>에는 肝은 膈膜과 連하여 있고 밤에 누우면 血液은 肝으로 들어 간다고 했다[7].

韓方에서의 精神思惟와 關聯지을 수 있는 것은 七情이다. 七情이란 <禮記>에서 말한 喜·怒·憂·思·悲·恐·驚이니, 人間이 날 때부터 本能的으로 가지고 있는 情의 總和이다[8].

七情은 內因中 가장 많은 病의 要素가 되고 있다. 七情이 內因的 因者로서 疾病을 일으키는 것은 氣機의 變化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氣機의 變化란 통상 氣의 機能活動의 變化를 뜻하며 臟腑之氣의 運行通路의 變化를 뜻하기도 한다[9].

사람의 七情은 일반적으로 正常的인 生理現象에서는 疾病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情

1. 金定濟, 診療要鑑, 東洋醫學硏究院, p.166, 1983.
2. 全國韓醫大敎授, 肝系內科學, p.23, 1989.
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동의학사전, p.16, 1990.
4. 吳謙 外, 醫宗金鑑, 대성출판사, P.675, 1991. '肝者將軍之官 謀慮出焉 其合筋也 其榮爪也 主藏魂 開竅於目'
5. 上揭書, '肝者 罷極之本 魂之居也 其華在爪其充在筋 以生血氣 其味酸 其色蒼 此爲陽 中之少陽 通于春氣'
6. 上揭書, '肝臟應春陽 連枝膽共房' '四斤余四兩 七葉兩分行'
7. 李梴, 醫學入門, '肝連胸膜而形有軟堅' '名血海而歸收暮也'
8. 張淑必, 栗谷心性說의 理氣論的 特性, 고려대, p.81, 1983.
9. 金賢濟, 洪元植 譯, 韓醫學辭典, 成輔社, 1983.

志의 波動이 極烈하거나 持續的이고 오래되면 氣機의 變化와 生理機轉에 쉽게 影響을 주며 이로써 疾病이 發生된다[10]. 七情中 '怒'는 肝의 情志로서 肝의 疏泄에 影響을 주고 肝의 病理變化를 일으키는 七情의 主要한 要素가 되고 있다.

七情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은 지금까지 많이 硏究되어지고 發表되어 왔다. 그러나 七情이 肝에 미치는 영향이나, 肝의 疏泄과의 관계, 그리고 肝의 疏泄失常으로 因한 消化器 障碍는 앞으로 더욱 硏究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著者는 肝과 七情에 關한 것과 七情으로 因해서 나타나는 肝의 病理, 또한 肝의 病理가 消化器에 미치는 影響을 文獻을 參考로 硏究하였다.

Ⅱ. 本 論

1. 肝의 疏泄機能

疎泄이란 用語는 升發과 透泄을 意味한다. 즉, 肝은 全身의 氣를 舒展, 通暢, 條達시키는 機能을 한다는 뜻으로, 肝氣의 喜條達하는 性質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또한, 精神情志活動과 膽汁의 分泌와 함께 排泄作用面에도 關係한다[11][12]. 肝氣의 疎泄作用으로 人體 氣機의 升降 및 條達이 잘 遂行되므로 肝은 물론 기타 臟腑生理機能0에 까지도 影響을 미치게 된다[13]. 즉, 肺의 昇降作用,脾의 運化昇降作用,心氣의 鼓動作用, 腎氣의 氣化升騰作用의 正常遂行으로 因한 人體의 情神意志活動, 氣血運行, 飮食消化와 吸收·排泄, 津液의 宣發 輸布活動이 모두 肝의 疏泄機能에 의하여 調節된다.

肝의 疏泄作用은 各 臟腑의 氣機升降과 協助에 직접 影響을 미쳐[14], 情神活動, 消化吸收, 津液의 輸布, 氣血의 運行等을 調節해 준다 .

肝主疏泄의 疏泄은 素問. <五常政大論>의 '土疏泄 蒼氣達'에서 처음 보인다. 素問 <寶命全形篇>에는 '土得木而達'이라고 하였으니 內經에서의 意味는 木氣가 上達하여야 土가 비로소 疏通케 된다는 것이었다. 이후 元代의 <格致餘論>[15]에서 '司疏泄者 肝也'라 하였으나 주로 男子의 射精作用을 말한 것이었고 明·淸代에는 疏泄에 대한 記述이 계속 나타나는데 銀海指南에는 '肝屬風木, 其臟主疏泄, 凡人憤悶, 或受六淫之邪, 卽氣不宣流'라 하였다. 또한 葉天士는 精神的인 스트레스와 肝主疏泄의 關係를 論하고 있다[16]. 現代에 이르러 肝의 疏泄作用은 條達升發하는 性質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臟腑組織의 氣가 升降出入하며 이것의 平衡協調에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음을 論하고 있으며, 肝의 重要한 機能의 하나로 認識하고 있다.

肝의 疏泄機能이 各 臟腑 氣機의 升降과 協調에 미치는 直接的인 影響에 關한 주요한 方面은 다음과 같다[17].

첫째, 氣血의 運行을 維持해 준다.

人體의 氣血의 運行은 氣機의 條暢이 大前提 가 되며 氣機의 條暢에는 心, 脾, 肺等 臟器의 推動, 統攝 뿐만 아니라 肝의 疏泄作用이 重要한 役割을 한다.

卽, 肝의 疏泄機能이 正常이라야 氣機가 條達舒暢케 되어 氣血의 通行에 障碍가 없게 되므로 이를 '血症論'[18]에서는 '肝屬木, 木氣衝化條達, 不至渴鬱, 卽血脈得暢'이라 하였다. 그래서 氣血의 運行이 充實하면 어떠한 刺戟이

10. 柳熙英, 東醫精神科學, p.25, 1988.

11. 김현제·홍원식 편역, 韓醫學辭典, 성보사, p.126-130, 1983.
12. 中醫硏究院·廣東中醫學院, 中醫名詞述語辭典, 商務印書館, 1979.
13. 邵念方, 臟腑證治와 用藥, 山東中醫學院, p.71, 1982.
14. 上揭書, P.71, 1982.
15. 醫論著, 元代 朱震亨이 撰, 모두 41편의 論文, '陽常有餘, 陰常不足'의 原理를 重點的으로 설명
16. 悒鬱動肝致病---疏泄失職 氣鬱不舒 目不條達
17. 전국한의대교수, 간계내과학, p.25.1983.
18. 書名, '中西滙通醫書五種'中의 하나로 淸代 唐容川의 撰으로 1884年에 刊行됨.

주어지더라도 怒情의 表現이 病理的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둘째, 脾胃의 消化를 促進시킨다.

飮食水穀의 消化吸收와 排泄은 주로 脾胃의 運化作用에 의해 일어나고, 正常的인 脾胃의 運化機能은 脾升胃降하는 氣의 昇降運動에 의해 좌우되며, 肝의 疏泄機能은 이러한 脾胃의 昇降運動에 影響을 미친다.

세째, 津液代謝를 協助한다.

肝의 疏泄作用이 正常이라야 肺, 脾, 腎의 氣機가 條暢되어 肺의 通調水道와 脾의 運化水穀, 腎의 主水液과 昇降開闔作用을 充分하게 發揮할 수 있게 되고[19], 동시에 三焦의 氣機를 條達케 하여 決瀆行水作用을 發揮하게 하므로 津液代謝가 正常的으로 이루어지게 協助한다.

넷째, 情神情志를 條暢시킨다.

사람의 精神活動은 心이 主管하지만 그 具體的인 機能은 五臟의 活動과 關聯하여 各 臟에 分屬된다. 이는 사람의 情神活動과 情緖現象이 五臟 機能의 外顯的 表現이라는 意味를 가짐을 말하는 것이다[20]. 따라서 사람의 情神活動은 五臟의 機能活動이 그 基礎가 되며 五臟의 機能活動은 또한 氣機의 條暢과 氣血의 正常的인 運行에 좌우되므로, 肝의 疏泄機能은 사람의 精神活動에도 密接한 影響을 미친다.

다섯째, 膽汁의 分泌와 排泄을 促進시키는 作用을 한다. 肝과 膽은 서로 表裏關係에 있으며 膽汁은 肝의餘氣가 化한 바로서 肝의 疏泄機能은 膽汁의 分泌와 排泄을 促進시키는 作用을 한다[21].

여섯째, 月經의 來潮와 排卵, 射精등에 影響을 미친다. 肝의 疏泄作用이 正常的으로 이루어지면 氣機가 條暢되어 妊脈이 疏通되고 太衝脈이 旺盛하게 되어 여자의 排卵, 妊育 및 月經의 來潮가 正常的으로 일어나게 되며, 男子에서는 射精을 促進하여 男女 生殖系統의 機能을 健全旺盛하게 한다.

19. 邵念方, 臟腑證治와 用藥, 山東中醫學院, p.71, 1982.

2. 肝의 疏泄과 七情

韓醫學的으로 內因은 七情이다. 七情으로 인해 內的인 氣機의 變化를 일으켜 臟腑의 病理變化가 나타나게 된다. 七情이란 內的 外的 刺戟에 대하여 나타나는 人體의 情志變化로서, 이러한 變化는 精神活動의 具體的 表現이며 다른 事物, 다른 環境의 影響에 의하여 사람의 情志를 時時刻刻 變化시키는 것으로, 七情의 變化가 지나치면 精神上에 過度한 刺戟을 주게 된다. 즉, 七情의 變化가 持續되면 氣機가 失調하여 血, 火, 濕, 痰 等이 鬱滯하거나(實證), 臟腑氣血陰陽이 損傷되거나(虛症), 或은 虛實이 挾雜하거나 或은 非生理的인 産物(痰飮, 瘀血 等)을 養成하여[22] 五臟 모두를 損傷한다.

七情中 怒는 肝膽經에 屬하여 臟으로는 肝이 되고 情志로는 怒志가 되며 肝臟의 血이 남으면 怒가 일어난다고 하였고[23], 또한 膽氣가 鬱하여 不舒하여도 怒가 잘 發生된다고 하였다[24].

肝의 機能面에서 生理特性으로는 喜條達과 健胃强壯이 있다. 肝喜條達이란 氣의 舒暢通達을 가리키며 이로써 人體의 正常的 生理機能을 營爲할 수 있다. 條達이란 본래 樹木이 무럭무럭 生長하고 持操가 暢達함을 形容하는 것으로 이를 人體에 關聯시키면 肝氣의 條達로서 氣血이 比較的 舒暢해지는 것을 말한다. 條達은 肝氣의 疏泄作用에 依存하며, 肝의 疏泄은 또한 脾胃의 消化를 돕고 脾氣의 散精等의 作用을 돕는다.

怒가 肝의 疏泄障碍를 일으켜 오히려 肝을 傷하게 하고, 그 氣가 激하므로[25] 上逆하여 肝을 傷하게 하기도 한다. 怒情은 慾望이 達

20. 黃帝內經 素問, 陰陽應象大論, '人有五臟化五氣 以生喜怒悲憂恐'
21. 金賢濟, 東洋醫學槪論, 東洋醫學硏究院, p.41. 1977.
22. 宋鷺永, 中醫病因病機學, 일중사, p.272.
23. 王肯堂, 六科證治準繩, 대성문화사, p.307, 1992.
24. 대한동의생리학회, 동의생리학, p.257.1993.
25. 黃義完, 心身症, p.49. 1989.

成되지 못하고 抑壓을 받음으로 衝動的 興奮으로 發하는 情緖로서 怒情을 生活機能으로 觀察하면 興奮狀態로 觀察된다고 하였으며[26], 韓[27]은 木性은 動하고 直하면 進하는 性質이 있는데 이것을 心情에 비해 말하면 怒情에 屬한다고 하였다.

七情이 人體의 氣機를 變化시켜 怒로 因한 肝에 影響을 주고 있음을 五行的인 觀點에서 歸納分類하면 다음과 같다[28]. 五行에 屬한 木은 主觀的인 面에서는 怒이고 生活機能面에서는 興奮이고 行動的인 面에서는 面紅目赤, 毛髮竪起, 橫眉張目, 嘔吐不止, 甚至眩伏厥倒 等으로 나타나며, 生理學的인 面에서는 氣擊하여 上逆하게 되는 것이다.

3. 韓醫學的으로 消化器에 影響을 미치는 肝의 病理

韓醫學에서의 肝이란 단순히 解剖學的인 實質臟器로서의 肝臟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五運的 五臟으로서의 肝을 意味한다. 卽, 韓醫學에서의 五臟槪念이란 自然系內에서 일어나는 現象 變化를 說明하는 方法中 하나인 五運을 人體內의 生理機能을 認識하는 方法으로 導入하여 形成된 것으로서 西醫學에서의 解剖生理學的 臟器와는 그 槪念을 이루는 理論的 基礎가 다르다[29].

따라서, 肝의 病理變化는 組織學的, 生理學的인 變化 뿐만 아니라 五行의 觀點에서 오는 變化를 包括하고, 특히 精神的인 면에서 怒로 인해 肝의 病理變化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尹[30][31]等은 感情이나 外氣의 變化가 脈管 및 自律神經의 緊張과 弛緩을 誘發하는 것을 氣의 變化로 보고 그 病症을 七氣, 九氣, 氣鬱, 氣逆, 中氣 等으로 보았다. 素問 <擧痛論>에 怒하면 氣上하고, 喜하면 氣緩하고, 悲하면 氣消하고, 恐하면 氣下하며, 驚하면 氣亂하고, 思하면 氣結한다고 하였는 바, 七情의 偏勝이 氣에 影響을 미쳐서 곧 疾病을 일으킬 수 있음을 말하였고,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喜는 心을 傷하게 하고, 怒는 肝을 傷하게 하며, 思는 脾를 傷하게 하고, 憂는 肺를 傷하게 하며, 恐은 腎을 傷하게 한다고 하였는 바, 이는 七情의 偏勝이 人體의 內臟에 대하여 不利한 影響을 미치는 것을 說明한 것이다.

肝의 疏泄功能이 잘 이루어지면 氣機의 調暢이 나타나 氣血이 調和되어 經絡이 通利하고, 臟腑機關도 活動이 正常化된다[32].

氣機란 運動의 基本 形式[33]을 表現한 것으로 臟腑의 物質代謝過程의 활동이다. 肝의 下焦에서 下者上升하듯이 肝氣升發하는 것이며 氣血의 上下가 貫通되어야 氣機의 調暢이 일어난다. 臟腑上下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氣機의 升降은 對立과 統一을 가지고 이루어지며 만약, 升降이 되지 않다면 生長化收藏이 없으며 出入不利하고 經絡不通하고 氣血의 循環이 障碍를 받게 되어 氣의 機能이 失調[34]하고 肝에서는 肝氣不疏하여서 肝氣鬱結로 된다[35].

肝氣가 鬱結되면 膽汁의 分泌·排泄異常[36]이 생기고, 脾胃氣의 升降作用이 障碍를 받아 消化·吸收·排泄의 病理現象이 생긴다[37].

肝氣鬱結[38]은 氣機의 失調로 條達機能이 喪失되어 氣血이 鬱滯되어 나타나는 現象으로 이 肝氣鬱結이 進行되면 氣鬱化火의 病理變化

26. 윤길영, 生理學新講, p.136.
27.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p.195.
28. 李忠烈, 前揭書, p.161.
29. 大韓東醫生理學會, 東醫生理學, p.257, 1993.
30. 黃義完, 心身症, 행림, p.18. 1985.
31. 尹吉榮, 東醫學의 方法論 硏究, 성보사, p.34- 35, 1983.
32. 鄭遇悅, 肝의 病理變化에 대한 韓醫學的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第 5卷 第 1號. p.141.
33. 楊醫亞,中醫學問答, 人民衛生出版社, p.28, 1985.
34. 黃帝內經. 素問, 六微旨大論.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동양의학연구원, pp. 14, 18, 44. 1981.
36. 程紹恩外 1人, 辨證論治心法, 북경과학기술출판사, p.73, 1986.
'肝的疏泄功能 必賴而膽府相火之溫照, 膽汁的排泄必由肝之疏泄'
37. 鄭遇悅, 韓方生理學, 삼진사, p.203, 1988.
38. 金賢濟, 東洋醫學槪論, 東洋醫學硏究院, p.41, 1977.

를 나타내어 肝火上炎하고 肝火로 肝의 陰血을 損傷하게 되어 肝陰不足狀態를 나타나게 된다[39]. 肝陰이 不足하게 되면 肝陽이 上亢하게 된다. 그래서, 低熱, 觀紅, 盜汗, 心煩不眠, 反復되는 潮熱, 汗出, 舌紅少苔, 脈弦細數 等症이 나타나게 된다[40]. 오래되면 本虛標實型의 肝陽上亢으로 臨床에서 나타나며 필연적으로 陰虛血枯하여 筋脈을 失養하고, 胃腸管의 運動力도 떨어지며, 食慾不振이 나타난다[41].

또한, 肝의 經脈上의 氣血循環의 障碍를 招來하여 肋脇脹痛, 乳房腫痛, 小腹脹痛 等의 症狀을 나타낸다.

肝氣鬱結은 精神的인 抑鬱과 密接하다는 점에서 情志의 不調와 氣鬱의 散이 되지 못하는 鬱證과 聯關되어 생각 할 수 있다[42]. 王安道는 많은 病의 原因이 鬱로 因하여 온다고 하였고[43], 鬱怒의 難伸은 肝의 不調理로 氣가 失調됨으로써 橫逆하니 心身을 침범하여 脾胃를 相剋한다는 것을 보면[44], 鬱證으로 因해 脾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黃帝內經 ·素問 · 六元正紀大論· 第 71編> 에서는 木鬱이 發하면 胃脘當心而痛 飮食不下 한다고 했고 張介賓의 <景岳全書·卷19雜證· 鬱證>에는 鬱로 因해 病이 생기니 그 核心은 心이 있고 鬱怒, 思鬱, 憂鬱 等이 있다고 했으니 七情으로 因한 것을 强調 하였다. 또, 明代 虞搏의 <醫學正典>에는 六鬱을 氣,濕,熱,痰,血,食이라 했고, 氣鬱로 因하여 濕滯가 생기면 熱이 되고, 熱鬱이 되면 痰이 生기고 痰滯하여 血이 不行하면 食事해도 消化가 안되니 이 모든 것은 서로의 病의 原因이 된다고 했다[45].

<東醫寶鑑·雜病編· 卷之六·積聚>에서도 鬱을 病結不散也로 설명하고 六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 氣鬱은 血不行을 일으켜 消化障碍에 이르게 하며[46], 朱丹溪의 <丹溪心法>에서는 情志의 波動으로 正常을 잃으므로 氣가 鬱滯하여 많은 疾病을 誘發한다고 했다[47]. 肝鬱이 日久하면 機能的 不理가 오며 食事가 줄고 消化가 되지 못하므로 氣血의 生成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心脾가 久虛하고 氣鬱이 火로 變하여 陰血을 傷한다고 했다[48]. 卽, 肝氣鬱滯로 胸悶, 脇痛, 腹脹等의 症候가 있고 氣滯가 胃를 和降하지 못하면 噯氣, 飮食의 思感이 없고 肝氣가 脾를 乘하면 腹痛, 嘔吐, 大便不調가 온다. 또 氣鬱이 日久하여 火로 動하면 津液이 熾上하니 胃腸에 熱이 있게 되고 胃失和降하여 胸悶과 脇脹이 있으며 嘈雜과 呑酸이 있게 되니 消化器에 障碍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疏泄機能失調로 肝氣가 鬱結된 狀態가 甚한 狀態로 日久하거나 肝氣가 太過하면 木旺克土 또는 木橫克土의 病理變化가 나타난다. 이 現象을 肝氣犯胃 또는 肝胃不和라고 하며 胃脘脹痛, 呃逆, 噯氣, 呑酸 等의 症狀이 肝氣鬱結과 함께 있다.

肝氣가 橫逆乘脾하면 脾氣가 上升하지 못하는 病理現象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肝脾不和 또는 肝氣乘脾라고 하며 腹脹, 腹痛, 腸鳴, 泄瀉 等症이 肝氣鬱結과 함께 나타난다.

肝氣가 上으로 橫逆하여 胃를 犯하였을 때는 胃主降이 喪失하여 上升하는 病理變化가 나타난다. 이때에는 運化機能失常으로 濕滯가 있게 되며, 이때 이미 鬱而化熱한 熱과 脾胃에 內生된 濕이 相交하여 脾胃 및 肝膽에 鬱結되어 濕熱病象[49]이 나타나며 發熱, 口苦, 困倦,

39. 上海中醫學院, 中醫學基礎, 商務印書館, p.89-93, 1977.

40. 김완희·최달영, 장부변증론치, 성보사, p.163, 1988.
41. 邵念方, 臟腑症治와 用藥, 山東科學技術出版社, p.124, 1983.
42. 유희영, 동의정신과학, 남산당, p.59, 1988.
43. 王安道, 醫經溯洄集, "風病之氣 多由於鬱 鬱者 滯而不通之義"
44. 유희영, 동의정신과학, 남산당, p.59, 1988.
45. "又氣鬱易濕滯 濕滯而成熱 熱鬱而成痰 痰滯而血不行 血滯而食不消化此六者皆 相因而爲病者也"
46. <東醫寶鑑 雜病篇 卷之六 積聚> '氣鬱而濕滯--血滯而食不消化'
47. '血氣衝和 萬病不生--有佛鬱 諸病生焉'
48. 유희영, 동의정신과학, 남산당, p.59, 1988.
49. 전국한의대간계내과교수, 肝系內科學, p.37. 38, 1992.

腹痛, 惡心嘔吐, 腹脹厭食, 脈弦等의 症狀이 나타난다. 病機로는 氣機不暢하고 肝脈을 막아 情緖가 激動하게 되고 兩脇에서 小腹에 이르기까지 腹痛이 일어나기도 한다[50].

肝脾不調의 臨床表現은 胸脇脹滿疼痛, 善太息, 情神抑鬱 或 性情急躁, 納食減少, 腹脹便糖, 或 大便不潤, 腸鳴失氣 或 腹痛, 泄瀉, 苔白, 脈弦 等이 있고 대개 胃臟의 自律神經失調, 慢性腸炎, 慢性肝炎 等에서 나타난다. 肝胃不和의 臨床表現은 胸脇胃脘脹滿疼痛, 呃逆, 噯氣, 呑酸, 嘈雜, 鬱悶 或 煩躁易怒, 舌苔薄黃, 脈弦 等이 있고 대개 慢性胃炎, 慢性膽囊炎, 慢性肝炎, 胃自律神經失調 等의 症狀에서 나타난다[51].

肝의 疏泄機能失調로 氣機가 不暢되면 三焦의 通利에 病理的인 變化로 水液代謝障碍現象인 水腫과 腹水 等症이 發生하고, 陰陽氣血이 紊亂해진다. 氣와 血은 密接한 關係가 있어서 氣行則血行하고, 氣鬱日久不舒卽 血行不暢하므로 藏血機能에 影響을 준다. 肝의 藏血量이 不足하면 全身 各處에 運行하는 血液量이 적어져서 胃腸에도 血液供給이 減少하며 消化器症狀을 誘發 할 수 있다. 卽, 人之所有者 血與氣耳라 하였고, 血氣가 不和하면 百病이 變生한다고 하여[52], 人體에 있어서 氣의 變化는 당연히 血에도 影響을 미쳐 消化障碍까지 誘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氣의 變化는 怒情으로 因한 肝의 疏泄作用의 失調이며, 自律神經系의 緊張이나 異常亢進에 의한 症候라고 생각된다[53].

疏泄機能이 失調되어 膽汁停滯가 일어나면 膽汁이 消化에 關與하는 機能들의 障碍가 온다. 膽汁은 腸內에 分泌되어 脂肪質의 표면적을 넓게 함으로 消化와 吸收에 容易롭게 하며 脂容性 비타민의 吸收를 促進시킨다. 膽汁은 腸의 連動運動을 亢進시키며, 腸內 細菌繁殖을 抑制하니[54] 膽汁의 停滯는 消化器 障碍를 誘發하는 것이며 이는 肝의 疏泄機能의 失調로 오는 것이다.

肝氣鬱結로 鬱而化火하면 熱이 생기며 이것을 氣有餘便是火라고하며[55] 熱火가 旺盛해져 肝經熱壅되면 疏泄이 太過하고 血爲熱迫하여 肝의 藏血機能의 障碍를 가져와 胃腸에도 血液供給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食慾不振, 惡心, 嘔吐, 身熱, 心煩, 急躁易怒, 或 吐血, 咯血, 衄血등의 症狀을 일으킨다[56].

肝火란 <類證治裁>[57]에서는 木鬱則肝火하여서 呑酸 脇痛이 일어나 狂이 되기도 하며, 痿가 되기도 하며, 厥이 되기도 하며, 痞가 되기도 하며, 呃噎이 되기도 하며, 失血이 되기도 하니 모두 肝火의 衝擊이라고 했다. <中醫名詞述語辭典>[58]에서는 肝의 機能亢成이 熱象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고 原因으로는 肝經溫熱, 肝陽化火이 있고, 情志刺戟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하였다. 臨床上 表現으로는 頭痛眩暈, 眼紅, 眼痛, 面赤, 口苦 急躁易怒, 舌邊尖紅, 苔黃, 脈弦數有力이 나타나고, 或 嘔血, 咯血等症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韓醫學大辭典>[59]에서는 肝氣가 亢成된 熱象이며, 七情이 지나치거나 肝陽의 化火, 또는 肝經溫熱에 의하여 오며 甚하면 昏厥, 發狂, 嘔血 等症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臟腑辯證論治>[60]에서는 '氣有餘便是火'라고 하였고 肝氣가 鬱滯되어 火로 化하여 나타나는데 火가 氣를 따라 위로 올라가서 頭部를 動搖시킴으로써 頭痛, 眩暈, 耳鳴이 있고 肝火가 薄血妄行한 즉 吐

50. 宋鷺氷, 中醫病因病機學, 일중사, p.201. 1983.

51. 안규석외 2인, 東醫病理學, 고문사, pp.354-355. 1990.
52. 張·馬合註, 黃帝內經, 북경, 素問, p.168.
53. 鄭遇悅, 韓方病理學, 三進社, p31, 1988.
54. 全國韓醫大教授, 肝系內科學, pp.306-307, 1989.
55. 정우열, 韓方病理學, 삼진사, p.204. 1989.
56. 宋鷺氷, 中醫病因病機學, 일중사, p.202, 1983.
57. 林珮琴, 類證治裁, 旋風出版社, p.185,
'木鬱卽化火 爲呑酸脇痛 爲狂 爲痿 爲厥 爲痞 爲呃噎 爲失血 皆肝火衝擊也'
58.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p.132, 1979.
59. 한의학대사전편집위원회, 韓醫學大辭典, 동양 의학연구원 출판부, p.8, 1989.
60. 김완희·최달영, 臟腑辯證論治, p.158, 1988.

血, 嘔血이 나타나며, 火가 陰을 損傷한 즉 便秘, 尿黃等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肝氣鬱結로 鬱而化火 하였다는 것은 精神的으로 보면 大怒氣逆했다는 것이고 吐血, 嘔血이 일어난다는 것은 精神的 衝擊으로 인한 胃腸管의 出血이며 火病이고[61] 韓方에서는 '薄厥症'이라 한다. <黃帝內經 素問·生氣通天論>에 보면 "陽氣者 大怒卽刑氣絶, 而血菀于上 使人薄厥"이라 하였듯이 大怒로 因해 氣機가 逆亂하여 傷肝하고 肝氣가 上衝하게 되어 肝氣의 上逆을 따라 血도 따라 올라와 吐血, 嘔血이 된다는 것이다[62][63]. 氣가 남으면 火로 되어서 肝火實하게 되고 呑酸, 脇痛이 일어나는데 심하면 火盛狂躁하여 厥逆하게 된다. 그래서 吐血, 衄血하게 되며 肝陽化風에 이르게 된다[64].

이것은 精神刺戟으로 인해 陽氣가 急亢되어 氣逆을 따라 血도 頭部로 上逆하게 되어 卒然昏厥等의 病症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며[65], 胃中의 積熱, 肝鬱化火하여 胃로 逆升해서, 脈絡이 瘀滯되고, 陽絡이 損傷된 所致로 설명하기도 하는데[66] 모두 精神的 要因이 重要하다고 하겠다.

Ⅲ. 考 察

東醫學에서 七情은 韓醫學에서 보는 病因中 內因中의 하나로 喜·怒·憂·思·悲·恐·驚의 情志變化이다. 이러한 變化는 精神活動의 具體的인 表現이며, 다른 事物, 다른 環境의 影響에 의해 사람의 情志를 時時刻刻 活動 變化시키는 것이지만 正常的 狀況에서는 그 變化에는 節度가 있으므로 健康에는 無害하다. 그러나 情志變化가 지나쳐 身體內에서 감당할 정도를 넘었을 때에는 正常的인 生理變化에 障碍를 가져와 疾病이 나타나게 된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는 '怒는 肝을 傷하게하며, 思는 脾를 傷하게 하고, 憂는 肺를 傷하게 하며, 恐은 腎을 傷하게 한다'라고 하였듯이 七情의 便乘이 人體에 있는 臟腑에 變化를 주고 결국 病變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怒情은 否定的인 情緖로서 慾望이 達成되지 못하고 抑壓을 받음으로 衝動的 興奮으로 發하는 것이다.

內經[67] 에서 怒와 關聯된 內容은 風, 木, 肝, 痰, 血, 陰, 氣等으로 要約할 수 있다.

怒情이 過極하게 되면 肝氣鬱結되고 肝氣가 亢盛하여 肝火[68]를 일으켜 頭暈, 面紅, 目赤, 口苦, 急躁易怒, 舌尖紅,脈弦數 等의 症狀을 일으킨다. 氣逆하면 頭眩, 耳聾, 不聰, 頰腫等의 肝氣實한 症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69][70]. 또한, 薄厥[71]·善忘其前言 腰脊不可以免仰屈伸·嘔血飧泄 短氣欲絶不得息[72] 昏迷惶惑[73]· 髮焦筋萎爲努·夜夢飛揚·寒咆[74]等의 症狀도 같이 나타난다.

한편 이러한 怒情의 活動은 肝의 氣血과 關係가 깊다. 만약 肝血이 充分하고 肝氣가 和平하면 外部의 어떤 刺戟이 주어지더라도 怒의 表現이 過多하게 나타나지 않아 病理的 狀況으로 發展하지 않는다. 반면에 肝의 陰血이 不足하거나 肝氣가 太過하면 往往 조그만 刺戟

61. 康命吉, 濟衆新編, 여강출판사, p.156, 1992.

62. 楊醫亞, 中醫學 問答, 人民衛生出版社, p.143, 1985.
63. 中醫研究院, 中醫症狀鑑別診斷學, 人民衛生出版社. p.81, 1987.
64. 林珮琴, 類證治裁, 선풍출판사, p.185, 1967.
65.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商務印書館, p.354, 1975.
66. 孫淑英, 問答式 韓方內科學, 成輔社, p.260, 1991.
67. 王氷編, 黃帝內經, 고문사, p. 90.1971.
68. 章眞如, 風火痰瘀論, 人民衛生出版社, p.55, 1986.
69.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대성문화사, p.123, 1992.
70. '血有餘卽 病目赤兩脇下痛引小腹善怒氣逆卽 頭眩耳聾不聰頰腫 是肝氣之實也'
71. 張·馬合註, 黃帝內經,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素問> p.4, 10, 11, 20, 42, 83, 320, 326, 410
<靈樞> p.27, 57.
72. 許 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94-97. 1981.
73.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서원당, PP25, 748-749, 1977.
74. 徐有渠, 林園十六志, 서울, 서울대古典刊行會, pp.19-21, 1967.

이 있어도 怒情이 發動하여 病的 狀態로 轉移된다[75].

怒는 肝의 機能과 密接한 關聯이 있으므로 '肝在志爲怒'라 하였다 大怒는 肝을 傷하게 하여 疏泄失常하게 한다[76].

過度한 怒는 肝의 疏泄作用을 失調하게 하여 肝氣鬱結을 일으키고 肝氣橫逆과 肝火 等의 病理變化를 일으킨다.

肝氣橫逆은 肝氣犯胃, 肝氣乘脾로 나타나며 消化器 障碍를 誘發하게 된다. 肝氣橫逆은 五行上으로 보면 '木旺克土'하는 것이고 消化器障碍症狀과 肝氣鬱結이 같이 나타난다.

肝氣犯胃를 설명한 文獻을 살펴 보면 <中醫名詞述語辭典[77]>에서는 肝氣가 扁亢하여 疏泄作用이 秩序를 잃어 消化器에 紊亂을 주는 것이며 頭眩, 脇痛, 易怒, 胸悶, 小腹脹, 脈弦等과 脾胃症狀이 같이 나타난다고 說明하고 있으며, <臟腑辨證論治>[78]에서는 肝氣鬱結이 甚해졌을 때에 疏泄機能이 失調되면 胃의 受納과 和降機能이 失調되고 肝氣가 橫逆하여 胃脘에 氣가 鬱滯됨으로써 胃脘脹痛, 呃逆噯氣하며, 氣가 胃中에 鬱滯되어 熱을 生함으로써 呑酸, 嘈雜症狀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肝氣乘脾를 설명한 文獻을 살펴 보면 <中醫名詞述語辭典>에서는 肝氣鬱結로 말미암아 疏泄障碍가 오면 脾胃의 消化作用이 안되어 脇痛, 厭食, 腹脹, 大便溏泄, 四肢倦怠等의 脾虛症狀이 나타난다고 했으며 <臟腑辨證論治>에서는 肝鬱本經症狀 뿐만 아니라 脾經의 症狀으로서 腹脹·腹痛·腸鳴·泄瀉·舌苔白膩·脈弦滑等症이 나타나며 肝氣가 鬱滯되어 肝木이 脾土를 克함에 따라 脾의 運和機能이 失調된다고 했다.

肝氣鬱結은 情志의 不調로 氣鬱이 된다는 면에서 實證의 鬱證의 範疇[79]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胃失和降하여 나타나는 噯氣, 呑酸, 食慾不振과 肝氣乘脾하여 나타나는 腹痛, 泄瀉, 大便不調등과 日久하여 火로 動할때 나타나는 胃熱의 症狀도 수반된다. 이것은 木鬱로 因해 肝氣鬱結, 肝火로 되어 나타나는 症狀과 通하며 治法에 있어서는 五鬱의 治療原則인 '木鬱達之'[80]를 活用할 수 있다.

怒情과 함께 일어나는 生理的 變化는 氣의 上逆에 의해 發顯되며 또한 藏血하는 機能의 失常으로 말미암아 氣가 上逆하게 될때 血도 上逆하게 되므로 面紅發熱, 口血등의 現象도 나타난다[81]. 氣가 上逆되면 肝臟機能에 影響을미쳐서 升發과 疏泄作用이 太過함에 따라, 怒卽氣盛而胸張, 肝擧而膽橫하며 呃氣, 嘔吐, 糟雜을 일으키며 血之與氣, 幷走于上하여 厥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것은 韓方에서는 '薄厥'이라 하며 大怒로 因해 氣機가 逆亂하여 嘔血, 吐血하는 것이다. 이것은 洋方的으로 보면 食道靜脈瘤의 出血이나 出血性 胃炎, 消化性 潰瘍일 때가 많다. 食道靜脈瘤는 肝硬變症으로 많이 오는데 韓方的으로는 積聚[82]로 볼 수 있으며 組織學的으로 보면 肝細胞의 結節性 增殖으로 血管을 壓迫하여 肝文脈壓이 亢進하게 되며 문합부가 擴張하여 食道나 胃의 靜脈瘤를 形成하게 된다[83]. 문맥압의 亢進으로 형성된 食道靜脈瘤는 食道의 靜脈으로만 덮여 있기 때문에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지만[84] 특히 精神的인 影響이 食道靜脈瘤의 破裂을 많이 일으키며, 臨床上 大怒를 發한뒤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吐血의 內因으로 怒動肝火[85]라고 表現한 것과 類似하다고 볼 수 있다.

75. 문준전, 안규석, 최승훈, 東醫病理學, 고문사, pp.57-63.1990.
76. 大韓東醫生理學會, 東醫生理學, p.266, 1993.
77. 中醫硏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P.133, 1979.
78. 金完熙·崔達永, 臟腑辨證論治, 성보사, P.157, 1988.
79. 유희영, 동의정신과학, 남산당, P.60, 1988.
80. 張·馬合註, 黃帝內經, 素問, 擧通論, 六元正紀大論.
81. 강선태, 怒의 病理에 關한 文獻的 考察, 東西醫學, Vol.9, No.3, 1984.
82. 張璐 , 張氏醫通 , 1699. "積者五臟所生, 其始發有常處, 其痛不離其部, 上下有所終始, 左右有所窮處; 聚者 六腑所成, 其始發無根本, 上下無所留止, 其痛無常處."
83. 이중달, 그림으로 설명한 병리학, p.477, 1990.
84. 월간 임상약학, 5월호, 통권 109호, p.62-63, NO. VOL10, 1990.

出血性 胃炎이나 消化性 潰瘍으로 인한 嘔血, 吐血은 怒로 인해 原因과 結果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怒로 인한 精神的 刺戟은 腦下垂體-副腎系의 機能亢進을 일으켜 胃酸의 分泌를 過多하게 함으로 나타나는 消化器 障碍와 一脈相通한다고 할 수 있다. 즉 胃酸에는 鹽酸과 펩신이 있는데 이것이 스트레스로 인한 미주신경의 緊張으로 分泌가 過度하게 되면 胃粘膜을 傷하게 하며 胃潰瘍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86]. 潰瘍이 甚해져 出血이 있을 때에 過度한 怒와 併發하면 血之與氣 幷走于上으로 薄厥證이 또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怒는 血氣가 逆上할때[87], 血이 有餘할때[88] 일어난다고 하였으니, 결국
은 생각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때라든가 精神的인 緊張이 오래 持續될 경우 發生한다고 볼 수 있으며 흔이 말하는 stress 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Selye[89]는 生體가 各種 刺戟을 받아서 生體恒常性에 激甚한 變動을 일으키고 生體가 곧 順應할 수 없는 경우, 그 原因으로 된 것을 stressor刺戟이라 부르고, 生體의 總體的인 變化를 stress狀態라 하였고[90], 이 變化의 主軸을 뇌하수체-부신계의 機能亢進이며 이를 凡適應症候群이라고 하였다. 田多井吉之介[91]는 體外에서 加해진 各種의 有害作因에 應해서 體內에 생긴 傷害와 防衛反應의 總和라고 하였으며, Harold G.Wolff는 威脅으로 나타나는 活動되는 內的인 힘 내지는 抵抗的인 힘이라 하였고, 또한 一般的으로 使用되는 스트레스는 適量을 넘어선 과도한 刺戟을 말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스가 反應임을 말하고 있다.

東洋醫學에서 stressor는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전 後漢時代에 張仲景이 著述한 金匱要略에 總括하고 있다. '千般疢難 이 不越三條하니 一者는 經絡이 受邪하고 臟腑에 入하여 內에 因하는 바이고, 二者는 四肢와 九竅에 血脈이 相搏하여 壅塞不通하여 外로 皮膚에 나타나는 것이고, 三者는 房室, 金刀, 蟲獸에 傷하는바, 이를 알고 이를 詳細히 하면 病은 여기서 다(盡)한다' 라고 三因을 말한 것을 土臺로 하여 宋代의 陳無擇이 "三因極一秉證方論"에서 內因, 外因, 不內外因이라는 三因을 唱하게 되었다. 즉 外因은 外感六淫과 癘氣를 가리키는 것이고, 內因은 內傷七情을, 不內外因은 飮食失節, 勞倦과 房室不絶, 外傷, 蟲獸傷등을 가리킨다[92][93][94].

Ⅳ. 結 論

1. 肝의 疏泄이라는 意味는 全身의 氣를 舒展·通暢·條達시키는 機能을 主한다는 뜻으로, 肝氣의 喜條達하는 性質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2. 肝의 疏泄의 失調는 肝氣鬱結을 일으키고 肝氣橫逆하여 消化器 障碍를 일으킨다.

3. 肝氣가 橫逆하여 胃를 犯하면 胃氣가 和降을 失하여 上逆하므로 噯氣,呑酸 或 嘔吐하게 되고 甚하면 胃脘疼痛 等이 나타나게 된다.

4. 肝氣가 橫逆하여 脾를 犯하면 運化機能이 失調되어 腹痛, 泄瀉가 교대로 일어나게 되는데 情緖의 變化에 따라 休作하게 된다.

85. 林珮琴, 類證治裁, 선풍출판사, p.133, 1967.

86. 黃義完, 心身症, 행림출판, p.89, 1985.

87. 黃帝內經 素問 四時刺逆從論 '夏刺筋骨 血氣上逆 令人善怒'

88. 黃帝內經 素問 調經論 '血有餘卽怒 不足卽恐 血氣未幷 五臟安定'

89. Hans selye: The gerneral adaptation syndrome and the disease of adaptation, J.clin. Endocrine metab, B:117, 1948.

90. 文九, 柴胡疏肝散이 胃腸管運動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學校大學院, 1988.

91. 申載鏞 編著, 方藥合編解說, 서울, 성보사, p.491, 1989.

92. 金容文, 調胃升淸湯의 抗스트레스 效果에 關한 實驗的 硏究, 경희대학교대학원, 1988.

93. 金完熙外 三人, 韓醫學 原論, 성보사, 서울, p.281, 1982.

94. 安秉國, 內科總論, 경희한의대 내과학교실, p.87, 1974.

5. 스트레스가 뇌하수체-부신계의 機能亢進을 일으켜 胃酸의 分泌를 過多하게 함으로 消化器 障碍를 나타내는 것은 肝氣鬱結로 因해 肝氣太過하여 肝氣犯胃, 肝氣乘脾하여 消化器 障碍를 惹起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6. 精神的인 抑鬱로 인하여 肝氣鬱結이 된다는 것은 鬱證의 範疇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脾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肝氣鬱結로 鬱而化火한 것은 大怒氣逆한 것이고, 肝火이며 吐血, 嘔血이 있는 것은 薄厥症에 該當하며 七情으로 因한 胃腸系統의 出血이나 食道 靜脈瘤의 出血이다.

七情중 怒는 肝에 가장 影響力을 주는 情志이므로 肝의 正常的인 生理機能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情緖的인 安定이 아주 重要하다. 따라서, 怒로 인해 肝에 病變을 일으켰을 때에는 怒를 풀어 주는 治療도 幷行해야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七情으로 인한 身體上의 病變도 根本이 되는 精神的인 面을 安定시키는 것이 必要하겠다. 이것은 몸의 疾病을 肉身의 病自體에만 執着하지 말고 感情과 理性을 지닌 人間을 보는 것이 重要하다고 思料된다.

參考文獻

1. 강선태, 怒의 病理에 關한 文獻的 考察, 東西醫學, Vol.9, No.3, 1984.
2. 康命吉, 濟衆新編, 여강출판사, p.156, 1992.
3. 科學百科事典綜合出版社, 동의학사전, p.16, 1990.
4. 金完熙·崔達永,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p.157, 158,163, 1988.
5. 金完熙外 三人, 韓醫學 原論, 성보사, 서울, p.281, 1982.
6. 金容文, 調胃升淸湯의 抗스트레스 效果에 關한 實驗的 硏究, 경희대학교대학원, 1988.
7. 金定濟, 診療要鑑, 東洋醫學硏究院, p.166, 1983.
8. 金賢濟, 東洋醫學槪論, 東洋醫學硏究院, p.41, 1977.
9. 金賢濟·洪元植 편역, 韓醫學辭典, 成輔社, p.126-130, 1983.
10. 大韓東醫生理學會, 東醫生理學, p.257, 1993.
11. 文九, 柴胡疏肝散이 胃腸管運動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學校大學院, 1988.
12. 문준전·안규석·최승훈, 東醫病理學, 고문사, pp.57-63, 1990.
13. 上海中醫學院, 中醫學基礎, 商務印書舘, pp.89-93, 1977.
14. 서유거, 林園十六志.
15. 巢元方, 巢氏諸病源候論, 대성문화사, p.123, 1992.
16. 邵念方, 臟腑症治와 用藥, 山東科學技術出版社, p.124, 1983.
17. 邵念方, 臟腑證治와 用藥, 山東中醫學院, p.71, 1982.
18. 孫淑英, 問答式 韓方內科學, 成輔社, p.260, 1991.
19. 宋鷺氷, 中醫病因病機學, 일중사, p.201,272, 1983.
20. 申載鏞 編著, 方藥合編解說, 서울, 성보사, p.491, 1989.
21. 안규석외 2인, 東醫病理學, 고문사, pp.354-355. 1990.
22. 安秉國, 內科總論, 경희한의대 내과학교실, p.87, 1974.
23. 楊醫亞, 中醫學問答, 人民衛生出版社, p.28, 143, 1985.
24. 吳謙 外, 醫宗金鑑, 대성출판사, p.675, 1991.
25. 王肯堂, 六科證治準繩, 대성문화사, p.307, 1992.
26. 王安道, 醫經溯洄集.
27. 柳熙英, 東醫精神科學, 南山堂, p.25,59, 1988.
28. 尹吉榮, 東醫學의 方法論 硏究, 成輔社, pp.34-35, 1983.

29. 尹吉榮, 生理學新講, p.136.
30. 李梴, 醫學入門,
31. 이중달, 그림으로 설명한 병리학, p.477, 1990.
32. 林珮琴, 類證治裁, 선풍출판사, p.133,185, 1967.
33. 張·馬合註, 黃帝內經,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素問> p.4, 10, 11, 20, 42, 83, 320, 326, 410, <靈樞> p.27, 57.
34.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서원당, pp.25, 748-749, 1977.
35. 張淑必, 栗谷心性說의 理氣論的 特性, 고려대, p.81, 1983.
36. 張璐, 張氏醫通, 1699.
37. 章眞如, 風火痰瘀論, 人民衛生出版社, p.55, 1986.
38. 全國韓醫大敎授, 肝系內科學, p.23, pp.306-307, 1989.
39. 程紹恩外 1人, 辨證論治心法, 북경과학기술출판사, p.73, 1986.
40. 鄭遇悅, 肝의 病理變化에 대한 韓醫學的 考察, 大韓韓醫學會誌 第 5卷 第 1號. p.141.
41. 鄭遇悅, 韓方病理學, 三進社, p31,203,204, 1988.
42.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商務印書館, p.132,133,354, 1975.
43. 中醫研究院, 中醫症狀鑑別診斷學, 人民衛生出版社. p.81, 1987.
44. 中醫研究院·廣東中醫學院, 中醫名詞述語辭典, 商務印書舘, 1979.
45. 韓圭性, 易學原理講話, p.195.
46. 한의학대사전편집위원회, 韓醫學大辭典, 동양 의학연구원 출판부, p.8, 1989.
47. 許 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p.94-97. 1981.
4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동양의학연구원, pp. 14, 18, 44. 1981.
49. 黃義完, 心身症, 행림출판, p.18,49,89, 1985.
50. 월간 임상약학 5월호, 통권 109호, pp.62-63, NO. VOL10, 1990.
51. Hans selye: The gerneral adaptation syndrome and the disease of adaptation, J.clin. Endocrine metab, B:117, 1948.

ABSTRACT

The study of the influences that Chiljung(七情) exerts upon the Liver system, and Spleen-Stomach functions.

Seok Eui Hong, Kang San Kim, Byung Ki Kang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Won Kwang University.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that Chiljung(七情) exert upon the liver system, and Spleen-Stomach functions.

In oriental medicine regard stress as Chiljung(七情). No(怒),among the Chiljungs(七情) is a Shinji(神志) that the primary factors to develop the Kan(肝)s pathological process. The stress stimulates Hypothalamic Corticotpopin Releasing Center. This is why gastrin is more released than normal limit. It is caused disfunction of stomach. In result of No(怒), KanJuSoSeol(肝主疏泄)cannot do it's function. It results that KanKiBeomYi(肝氣犯胃) and KanKiSuingBi(肝氣乘脾). KanKiBeomYi caused to AiKi(噯氣), TanSan(呑酸), KanKiSuingBi caused to abdominal pain, diarrhea. In this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o take emotional stability, and escape from all this stress.